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한전공대 선정 방식'으로

내년 초 실시설계 착수·하반기 착공...2022년 준공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가 한전공대 선정 방식으로 결정된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 상반기 통합청사 준공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지면적 3만3057㎡(1만평), 건물 면적 9917㎡(3000평) 규모의 동부권 통합청사는 순천과 여수, 광양 등 동부권 3개시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심사해 오는 6월께 입지를 선정한다.

전남도는 동부지역본부들 비롯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 신용보증재단에다, 도청내 1개국을 추가로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전체 인員 260명 규모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별도의 동부권 통합청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입지선정 및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는 한전공대 선정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문가 위원 풀(200명)을 자체적으로 구성한 뒤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기준위원회(12명)와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회(12명)의 위원을 무작위 선 발해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올 하반기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 실시설계 착수, 하반기 착공 후 2022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청사 건축비는 부지비를 뺀 공사비 300억원, 설계비 25억 등 325억원으로 잡고 있다.

현재 순천시는 신대지구, 광양시는 광양읍 도청마을 인근이 각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여수시의 후보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한편 신축 청사는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실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공간,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 문화 공간, 열린 회의실 등 다목적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2행정부지사를 동부권에 배치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 동부지역본부 청사는 크기가 작아 문화적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실도 협소해 도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은 등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축 청사가 단순한 청사가 아닌 동부권 도민의 따뜻한 행복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차분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 첫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전남지역 첫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1차 관문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남교육청이 상정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을 의결했다.

대구 해물죽고 강원 노천초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전남에서는 처음이다. 경남에서도 2곳이 설립 준비중이다. 전남에는 사립대안학교는 2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공립은 최초다.

전남 1호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는 담양 옛 봉산초 양지분교장에 들어서며 고등학교 과정으로 학년 당 한 학급씩 학급당 15명씩 모두 48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2021년 3월 개교 목표고 운영은 '심정골짜기학교'에서 맡을 예정이다.전남 학생 70% 전국 단위 모집 학생 30%로 채워지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상임대안교육팀 박은주 장학사는 "민간과 공립 시스템을 접목시킨 첫 사례여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보완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촘촘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은 2018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제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설립 동의안이 상정됐으나, 공립학교를 민간위탁형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크고 작은 우려가 불거지면서 부결된 이후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에 재상정됐다.

그러나 교육위는 지난해 12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설립 예정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비롯, 몇몇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설립동의안 심의를 조건부 보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설과 행정과, 담양교육청, 담양군청, 민간위탁자 등과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작업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통 끝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낸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는 대안교육전문가인 민간위탁자의 역할을 공립학교에 접목하는 형태로 전남에서 처음 시도되는 학교이며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민선 3기 교육철학에 가장 적합한 학교인 만큼 민간위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 캠페인

광주 동구가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 1번지'를 목표로 보육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이번 정책은 정부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 위주에서 육아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동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력이 높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학부모 대상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3월 9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시 동구청 6층 대강당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을 초청해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는 솔루션'을 주제로 학부모교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구, 서구민상 후보자 추천 받는다

광주 서구가 3월 20일까지 '제25회 서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서구민상은 주민화합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서구의 숨은 일꾼을 찾아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로 스물 다섯번째 맞는 '서구민상'은 ▲사회·봉사부문 ▲이름다운 도시가꾸기 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 ▲지역·경제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1명씩 모두 4명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일) 현재 서구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교육장 및 대학 총·학장이 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지역주민들이 연대해 추천할 수도 있다.

남구, 효과 탁월 장애인집 방문 재활서비스 실시

광주 남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찾아가는 방문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9일 "재가 장애인의 집에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4명을 파견해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4명이 팀을 이뤄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이 사업은 다양한 재활운동과 민성질환 관리, 복약상담 등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관내에서 약 60여명의 장애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19일 광주사회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 해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주변 환경 개선 방안,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안종근 중앙청과 총무실장 등 도매법인 관계자는 "2018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 총량이 급감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증가 시켜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분리·선별해 처리해야 한다"라며 "향후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상태에 따라 매립장 반입 총량 증가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산구, 월곡2동 도시재생대학 개강

19일 광주 광산구가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곡2동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하고 5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 참여로 지역현안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 민선7기 광산구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오래된 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이런 구 계획 실행에 앞서 주민과 함께 그 방향과 내용을 학습·토론해보는 장으로 꾸며졌다.

임형택 기자

정부,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홍보대사 이낙연 위촉

"광주의 매력과 역량, 세계에 알릴 기회"



이낙연(가운데) 총리가 19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악인 오정해(왼쪽) 씨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이용섭 광주수영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각 부처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문체부·통일부·법무부 장관 등 부처 대표와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장, 대한수영연맹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광주수영대회조직위(위원장 이용섭 광

주시장)는 이 총리와 국악인 오정해 씨를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 총리는 "이번 대회에는 200여개 국가에서 1만5000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한다"며 "민주시의 성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 매력과 역량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회 개최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겠다. 광주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온 국민과 함께 대회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저부터 국내외 홍보에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최 도시인 광주는 오는 5월까지 경기장과 선수촌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음식점, 도로변 간판 정비 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대회 기간 10시간으로(평일 4시간) 확대하고 시내버스를 1시간 연장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수송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용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지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